

# 전기차 판매 '감속'...수입 전기차는 '가속'

### 1~9월 국내 11만7611대 등록...전년 동기비 1.9% 감소 충전 인프라 부족·배터리 화재 위험·보조금 제한 등 영향 1억 이상 수입 전기차 전년비 95.5% 급증 '부익부 빈익빈'

국내 완성차업체가 전용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점유율과 판매 대수를 끌어올렸던 국내 전기차 판매가 올해 주춤하다. 이와 달리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 브랜드 전기차 판매는 크게 증가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11만7611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감소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총 16만4482대가 등록되면서 성장률이 63.8%나 됐던 것을 감안하면 판매 속도는 더 크게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세를 달리던 전기차가 급작스레 주춤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우선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불편함이 있는 점과 배터리 화

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등이 제한되면서 내연기관에 비해 가격이 비싸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다르게 고가의 수입차 브랜드가 내놓는 전기차 모델은 잘 팔리는 등 상반된 분위기가 있다.

이날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출고가가 1억원 이상인 수입 전기차의 올해 1~9월 판매량은 5883대로, 전년 동월 3009대 대비 무려 95.5%나 급증했다. 이는 테슬라를 제외한 것이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3486대로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EQE'의 EQE 350 모델과 메르세데스-마이bach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 'EQS 580 SUV' 모델 등 고가의 차량이 인기 모델로 꼽혔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E'.

벤츠에 이어 포르쉐 1167대, BMW 987대, 아우디 243대 순으로 파악됐다. 포르쉐는 타이칸이, BMW는 BMW iX의 판매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

악됐다. 이런 고가 수입 전기차의 인기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기 불황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전기

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는 출고가가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선호 브랜드와 모델, 품질 등을 고려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로 가격이 2000만원 이상 낮아져 저가 전기차로 분류된 테슬라의 모델 Y가 지난달 작년 동월 대비 120.2% 증가한 4206대가 팔리며 수입차 판매순위 1위에 오른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탈탄소화 흐름에 맞춰 내연기관 차였던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것도 고가의 수입 전기차 판매를 도왔다.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판매된 고가 수입 전기차 중 법인 명의는 384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1% 늘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경기 불황에 따른 부익부 현상이 고가 수입 전기차 판매에 반영된 것으로, 돈 있는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 제네시스 G80·G80 전동화 모델 '최고로 안전한 차'

### 美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선정

제네시스 브랜드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서 G80과 G80 전동화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등급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올해 2월 GV90과 8월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이 TSP+ 등급을 받은바 있다. 여기에 이어 이번 G80 및 G80 전동화 모델까지 강화된 충돌평가서 TSP+ 등급을 받으면서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예방성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올해부터는 측면 충돌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을 높이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

측면 충돌평가는 기존보다 차량과 충돌하는 물체가 더 무거워지고 충돌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보행

자 충돌 방지 평가는 기존에 없던 야간 테스트가 추가됐으며, 헤드램프 평가도 TSP와 TSP+ 모두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driver-side small overlap front) ▲조수석 스몰 오버랩(passenger-side small overlap front)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side) 충돌 등 총 4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획득해야 한다.

또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advanced)'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제네시스는 모든 모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운전자 주의 경고(DAW)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우수한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네시스 G80과 G80 전동화 모델이 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서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됐다. G80 전동화 모델. <현대차 제공>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G80과 G80 전동화 모델의 TSP+ 획득을 비롯한

다수 차종의 최고 등급 획득은 제네시스 모델들의 높은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토요타·렉서스 초기품질·내구품질 1위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3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토요타가 '초기품질(TGW-i)' 1위를, 렉서스가 '내구품질(TGW-d)'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품질조사 초기품질(TGW-i) 부문에서 토요타는 올해 65PPH를 기록해 2위였던 지난해보다 23PPH 개선된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내구품질(TGW-d)에서 렉서스는 올해 97PPH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두 항목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점 수가 적어 품질 경쟁력이 우수함을 뜻하며, 올해의 산업 평균점수는 초기품질(TGW-i)이 125PPH, 내구품질(TGW-d)이 244PPH를 기록했다.

강대환 한국토요타자동차 상무는 "앞으로도 품질을 통해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토요타, 렉서스 딜러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번 컨슈머인사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토요타·렉서스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 감사 캠페인을 실시한다. 토요타와 렉서스의 액세서리 및 전용 플로어 매트, 캠페인 기간 내 인터타이어 사전예약 고객 15%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전세계 대리점 대회 성료...EV 가속화 등 사업전략 공유

### 5년만에 개최 140개국 참여

기아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열었다.

기아는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40개국에서 권역본부, 각국 법인, 대리점 사장단 및 배우자 등 3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아 EV 데이가 열린 경기도 여주 마암비전 빌리지 등을 방문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뿐 아니라 2년 전인 2021년 기아가 사명 및 CI(Corporate Image)를 변경한 이후로도 처음 열린 것이다. 대회 주제는 '영감을 통한 연결(Connected by Inspiration)'로 정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 참가자 모두 하나의 정체성을 갖자는 취지다.

대회 첫날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는 기아 송호성 사장이 기조 연설을 했다.

송호성 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전반의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필요하다"며 "첫째로는 사업 범위를 확대 전환하고, 둘째로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셋째로는 고객 중심적 브랜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성차 제조 기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2년 뒤인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차량공유(카셰어링)·차량호출(카헤일링)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기아 전 세계 대리점 대회 참석자들이 서울 광장동 에스24 라이브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다. 친환경 탄소중립 측면에선 기존 화석연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나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재활용을 위한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국내 갯벌을 복원하는 '블루 카본'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밖에 기아 경영진은 '2030년 글로벌 430만 대, 전기차 160만 대 판매'를 골자로 한 중장기 EV 가속화 전략을 대리점 사장단과 공유했다. 이를 위해 오토랜드 광명 2공장을 전기차 전용 생산 시설로 전환하고, 오토랜드 화성에서도 전기차 생산 차종을 늘려 세계 각국에 수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아는 "코로나 대우행(팬더믹) 기간 구축하기 어려웠던 사업 파트너십을 함양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토요타 스킬 콘테스트 열려

토요타코리아는 최근 서울 성수동 소재 토요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2023 토요타 스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2002년부터 매해 딜러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해 오고 있는 '스킬 콘테스트'는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경연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센터 테크니션 및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전국 딜러의 전문인력이 연 1회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며,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가 해를 번갈아 경연을 실시해 지난해 렉서스 브랜드에 이어 올해는 토요타 브랜드의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2023 토요타 스킬 콘테스트는 ▲고객지원 ▲부품 ▲일반정비 ▲판금 ▲도장 ▲서비스 어드바이저 ▲세일즈 컨설턴트 등 총 7개 부문의 경연을 치렀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기존 서비스 직군에 한해 실시된 콘테스트에서 전문적인 차량 판매를 담당하는 ▲세일즈 컨설턴트 부문을 신설해 영업인력의 역량강화를 도모했으며, 참가의 폭을 한층 확대해 인증교육 및 시험 통과 후 딜러 자체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총 50명의 인원이 이번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요타는 정확, 친절, 신뢰라는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